

아시아나 매각협상 코앞...손배한도 놓고 '밀당'

현산, 기내식 사태·금호터미널 저가매각 반영 주장 12일 주식매매계약...일각 "연말로 늦춰질수도"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임박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손해배상한도 등을 놓고 여전히 '밀당' 중이어서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은 당초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12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인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만 7주간을 소요한 만큼 이번 인수·합병(M&A)에서는 아예 본실사를 생략했다.

통상 M&A 추진시 한달 정도 본실사

가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협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작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가격조정한도는 당초 금호 측에서 매각에 나선 후보들에게 3%로 정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로 정하기로 양측이 대략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손해배상한도에 관한 부분이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산 컨소시엄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아시아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정 금 등의 유한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사게 넘겠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논

고도 이견이 엇갈렸지만 이는 대략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산 컨소시엄은 구주를 사는 데 3,2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 측은 구주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

미엄을 참작한 4,000억원대를 주장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박 전 회장이 자산총액 5,500억원 규모의 금호리조트를 추가로 현산 측에 요구했지만 이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SPA 체결이 연말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근 현산 컨소시엄 측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협상 자체가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호 관계자는 "협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견 조정 과정일 뿐"이라며 "양측 모두 판 자체를 흔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신세계백화점, 스마트 메시지

신세계백화점은 고객에게 발송되는 '스마트 메시지'를 통해 백화점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신세계는 매달 100만건 가까이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스마트 메시지를 통해 세일과 사은행사 등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6일부터는 점포별로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사진 명소와 아카데미 강좌, 추천 먹거리 등도 함께 소개한다.

계절별로 백화점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 정보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AI 표준화 워크숍

인공지능(AI)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분야 해외 표준전문가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2019 AI 산업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AI 국제표준화위원회의 빅데이터 표준화 작업반 의장인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 우창 AI 연구원이 연사로 나와 AI와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유통, 제조, 건설, 가전 분야 전문가들이 분야별 AI 응용 사례를 설명하고 산업 적용에 필요한 표준을 제안했다.

이마트, 먹거리 최대 50% 할인

이마트는 송년회를 흥파티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1일까지 연말 먹거리 할인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20억원 규모의 물량을 투입하고 기존보다 50% 더 큰 '어메이징 로스트 치킨'도 출시한다.

일반적으로 치킨 상품은 1~1.2kg 정도 되는 10~12호 닭을 쓰지만 어메이징 로스트 치킨은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1.8kg 내외의 18호 닭을 튀기지 않고 구웠다.

이마트는 18호 닭 8만수를 사전 계약해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치킨 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또 흥파티 초밥 세트를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선보이고 갈매고 호주산 소고기, 고통어 등 신선식품도 할인한다.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점을 고려해 방한용품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샐러드·과일은 6~8월, 와인인은 12월" 숙취해소 음료, 대학가 개강철 잘팔려

이마트24 매출분석

편의점에서 샐러드와 과일은 6~8월, 와인인은 12월에 가장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지난해와 올해 월별 점포 당일 평균 매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샐러드와 과일은 모두 6~8월에 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24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숙취해소 음료는 송년회 등이 많은 연말 매출이 가장 많았고 이어 3월과 9월 매출이 뒤를 이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3, 9월이 대학교 개강철임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의 숙취해소음료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이 기간 점포명에 대학, 학사 등이 들어간 점포의 숙취해소음료 매출이 전달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4일 전남복지재단에 '전남도민 출산장려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NH 전남영업본부 제공

광주은행, 순천대에 발전기금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순천대학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 광주은행은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전남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육성에 힘쓰며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NH 전남영업본부, 출산장려 기부금 출연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4일 전남복지재단에 '전남도민 출산장려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육원 본부장은 "그동안 전남도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농협은행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공헌활동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2017년부터 매년 2천만 원을 출연해 왔으며, 전남도 다자녀 행복카드도 출산하지 않은 태

아를 포함 2자녀까지 확대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출산장려 금융상품 출시와 일·가정 양립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p>■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p> <p>■ 동구</p> <p>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p> <p>■ 서구</p> <p>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p> <p>■ 남구</p> <p>봉선 673-6836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p>	<p>■ 북구</p> <p>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p> <p>■ 광산구</p> <p>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658-6751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p>	<p>■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광산지사 010-3601-1102</td> <td>담양지사 010-4154-8277</td> <td>영암지사 010-4624-8409</td> </tr> <tr> <td>목포(갑) 010-3272-2765</td> <td>곡성지사 010-6764-6100</td> <td>무안지사 010-3621-8989</td> </tr> <tr> <td>목포(을) 010-3635-6777</td> <td>구례지사 010-5431-4006</td> <td>함평지사 010-3773-2522</td> </tr> <tr> <td>목포(병) 010-9359-1648</td> <td>고흥지사 010-9151-2828</td> <td>영광지사 010-8666-2882</td> </tr> <tr> <td>여수지사 010-8648-1236</td> <td>보성지사 010-5259-6441</td> <td>장성지사 010-3666-1300</td> </tr> <tr> <td>순천지사 010-2547-7890</td> <td>화순지사 010-3666-5888</td> <td>완도지사 010-5619-7020</td> </tr> <tr> <td>나주(갑) 010-6445-9370</td> <td>장흥지사 010-3613-6114</td> <td>진도지사 010-3624-4777</td> </tr> <tr> <td>나주(을) 010-3713-7458</td> <td>강진지사 010-6646-1241</td> <td>신안지사 010-4627-1472</td> </tr> <tr> <td>광양지사 010-2630-1628</td> <td>해남지사 010-8181-2627</td> <td></td> </tr> </table>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45-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45-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